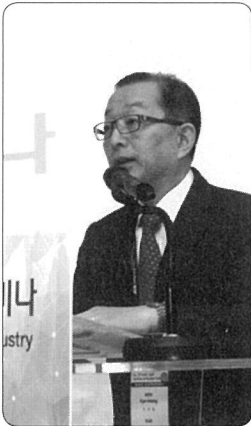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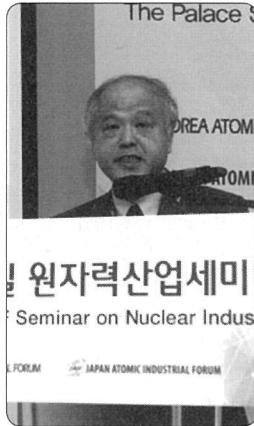


제33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개최 3개 세션 구성, 양국 전문가 140여명 참석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상근부회장



Akio Takahashi 일본원자력
산업협회(JAIF) 이사장



세미나 전경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3회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가 10월 27일(화) 더팔레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원자력계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와 지난 6월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Akio Takahashi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양국의 기초연설로 박구원 한국전력기술(주) 사장의 <한국 원전산업의 현황과 전망>과 Takeuchi Sumiko 일본 국제환경경제연구소 이사의 <일본의 에너지 상황>이 발표되었다.

<원전 운영 및 유지 보수>, <방폐물 및 원전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및 안전성 강화> 등 3개 기술세션에서는 한국 측에서 7편, 일본 측에서 5편의 기술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양국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 후 15명의 일본대표단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고리원자력본부, 창원의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자력 관련 시설을 시찰했다.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격년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면서 한-일 양국의 원자력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민계홍 상근부회장, 제2회 동아시아 청정에너지포럼 기조강연
 '한국의 원자력산업 및 원자력 R&D 현황' 주제 강연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상근부회장



패널 토론 전경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상근부회장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하이난 성(Hainan Province) 하이쿠시에서 중국국가에너지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of China)이 주최한 제2회 동아시아 청정에너지포럼에서 '한국의 원자력산업 및 원자력 R&D 현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기조강연에서 민계홍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역사와 기술 자립 경위, 원전 운영 경험, 원전 산업의 공급망,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및 신한울 1&2호기, 그리고 장기전원개발계획 등 한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산업의 현황 설명을 통해 아시아의 원자력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의 원자력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국가 간 청정 에너지 분야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원자력에너지', '전기 및 전력망', '태양 에너지' 및 '스마트에너지 시티'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에서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제1회 포럼은 2014년 중국 쓰촨성 칭다오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16 원자력협의회 심포지엄」 제1차 실무위원회의 개최

「2016 원자력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준비를 위한 제1차 실무위원회 회의가 11월 18일 한국원산 회의실에서 8개 회원기관 실무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6년도 원자력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 학술이사, 김병일 대한핵의학회 대외협력이사, 김성은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이사, 주용



2016 원자력협의회 심포지엄 제1차 실무위원회 회의

진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원자력협의회 심포지엄」 일정 및 개최 장소, 프로그램 구성, 발표 주제 및 강연자 선정 등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다.

본 실무위원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은 「원자력협의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검토 및 확정될 예정이다.

2015년도 한국원산 단체회원사 실무자 간담회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환경관리센터) 방문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단체회원사 실무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사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 방안 모색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및 향후 원자력의 전망 이해를 위해 11월 19일~20일까지 2일간 월성원자력발전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환경관리센터)을 방문하여 현장 견학과 함께 회원사 실무자 간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